

“내가 적임”... 전주를 후보 막판 지지 호소

尹,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안 재가

- 김경민 “집권여당 소속 의원 돼 전주 발전 최선”
- 강성희 “尹 심판·철새 정치 퇴출의 날... 표 몰아달라”
- 임정엽 “시민들의 한 표에 전주 운명 바뀌는 날”
- 김광중 “교육·금융산업도시 발전토록 노력할 것”
- 안해욱, 선거 기간 내내 ‘윤석열 정권 심판’ 외쳐
- 김호서 “따뜻한 격려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주에 출마한 6명의 후보자들이 자신이 적임자라며 막판 지지 호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오전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조수진 최고위원과 함께 도청사거리 유세 등에 나서며 마지막 날 유권자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는 “합이는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어 전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전주를 디지털 플랫폼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어 양질의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120시간 강행군에 나서고 있는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5일은 윤석열 심판 철새 정치 퇴출의 날”이라며 “당선 가능한 강성희에게 표를 몰아 달

라”고 외치고 있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4월 5일 시민 여러분의 한 표에 전주의 운명이 바뀔다”라며 “꼭 투표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이날 효자·삼천·서신동의 주거밀집지역 등 선거구 전역을 누비며 총력 유세전을 펼쳤다.

투표일까지 단식에 나서고 있는 무소속 김광중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가 범죄 도시가 아닌 교육 및 금융산업 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호도 수당 등의 지급을 약속한다”고 재차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무소속 안해욱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윤석열 정권 심판 등을 외쳤다.

끝으로, 무소속 김호서 후보도 마지막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쉽



‘투표지분류기 시연 중’

4·5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4일 전전주화신체육관에 마련된 전주 국회의원 재선거 개표소에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를 시연하고 있다.

달려왔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평생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자난 2주간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쇄도했고, 물론 따듯한 질책도 많이 들었다”며 “실전력과 능력이 이미 검증된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 김호서를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5일 진행되는 이번 재선거 본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후 오후 8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인 낮 12시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앞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제385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됐으며, 제386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4·5 전주를 재선거 투표율30% 미만 예측’

소수 조직표가 당락 좌우

4·5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당락을 결정할 전망이다.

4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전주를 사전투표율은 10.51%에 그쳤다. 전체 유권자 선거인 16만6092명 중 1만7437명이 투표한 것이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율을 31%(예비)에 비해 20.49% 이상 떨어진 셈이다.

사전투표율이 저조하면서 본투표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번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의 본 투표율은 30%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선거가 평일인 5일에 실시되고 맑았던 날씨가 투표당일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더욱 낮은 투표율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본투표 30%대에 머물면 5만여 명에 그쳐, 산술적으로 2만표만 얻으면 승리를 거머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수 조직표가 전주를 재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것인 말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6명의 후보들은 선거 막판 투표를 올리기에 집중할 모양새다.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도전장을 낸 후보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중 후보, 기호 7번 안해욱 후보, 기호 8번 김호서 후보 등 6명이다.

/뉴시스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4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해 9월 6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의 인사청문회 재협약을 통해 5개 기관에 9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게 됨에 따라 포함된 기관으로, 지난달 20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돼 4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졌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전북테크노파크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최형열, 권요안 김대중 김동규 김희수 서난이, 오은미 의원과 의장 추천 의원 김성수 박용근 이수진 의원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경영평가 하위권을 맏든 전북테크노파크의 개선방안 논란이 되고 있는 기관장 공모 이양지원 기관장의 역할 및 조직 운

영 계획 등 업무능력과 함께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나인권 위원장은 “후보자가 전라북도나 타 지자체보다 산업구조가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점은 의문이 든다”며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되신다면 산업구조 등 인프라 측면에서 전북이 취약한 점이 많으나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최형열 의원은 “후보자가 전북테크노파크와 포항테크노파크에 이중직을 하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전북II에서 노조와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현재 노조도 양다리 원장은 필요 없다는 현수까지 내걸고 있는데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펼치겠다는 각오에 걸맞은 노조와의 관계 설정을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은 전라북도 도정 최우선 시책이 기업유치와 민생경제 회복



4일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을 했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의문이 드는 점이 많으며 정확한 소명이 필요해 보임을 강조했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 업무능력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6일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규택 원장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배문고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을 전공했으며,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MD, (주)투인글로벌 플랫폼개발원장, (주)팩스브로 대표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서울대 글로벌R&D센터 부센터장으로 재직중이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